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I

김민자 · 최현숙 · 이현주

서울대학교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A Study on the History of Western Shoes and Their Aesthetic Value

Min-ja Kim · Hyon-sook Choy · Hyun-ju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1. 7. 9 투고)

ABSTRACT

In fashion, there are various cultural aspects that exist in complexity, where according to the era, even fashion items newly develop and prevail into various designs in the organic function with reality of related cultural phenomenon and aesthetic aim. Among the fashion items, the shoe is historically considered as the shield from lust and also the provision of praise against the most emotional incitement. Mankind has started wearing shoes out of the functional purpose of protection since the ancient Egyptian times. Thereafter humankind has been creating shoes artistically in respect to shape, color, and quality of material, etc, as an expression of aesthetical awareness and introspective desire for beauty.

As modern fashion increasingly regards the total fashion image much more important than each items consisting the whole outfit, the role of shoe became essential more than ever. Contrary to its relative importance, little academic attention was given to this area yet, while prestigious museums and galleries in Europe and the USA have held exhibitions of shoes in view of both historical and artistic aspects.

This study aims to make a historical inquiry of western shoes, through which their aesthetic values can be drawn. Literature on this subject including aesthetics, history of costume and arts were referred. Fashion magazines and catalogues were investigated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t to be a suggestion not only to further studies but also to artistic and creative shoe design.

Originated for the functional purpose, shoes have evolved in various shapes with different meanings attached to it. Whe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made the satisfaction for functional needs possible, the intrinsic attribute, the aesthetic value was pursued. The historical contemplations of shoes from

Egyptian times to the 1990's led to the results that the intrinsic aesthetic value of sho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rotection and extension of body, 2) need for decoration, 3) erotic expression, 4) symbol of dignity and class, 5) fashion.

Key Words : aesthetic value(미적 가치), protection and extension of body(신체보호성 및 신체확장성), need for decoration(장식욕구), erotic expression(성적 표현성), symbol of dignity and class(품위와 신분상징성), fashion(패션성)

I. 서론

부분적 디테일보다는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 전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패션에서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데 불가결한 품목 중 하나로 신발을 들 수 있다. 착용자의 내적 자아를 외적 형태로 표출하는 의복의 도구적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인에게 있어 신발은 전체적 표현의 최종적인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20세기 말 무렵부터 다수의 패션관련 언론 매체가 기사를 통해 신발의 중요성을 재조명 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갤러리에서의 아트 슈즈 전시회를 비롯하여 박물관에서의 역사적 신발 전시, 유명 신발 브랜드의 콘테스트 등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반인과 패션 전문가들의 신발에 관한 관심을 고양시켜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 신발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수 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다양한 외형의 신발을 통하여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재적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이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까지 신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실상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고찰과 규명을 바탕으로 복식사 분야에서 특히 신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천의 외형적 모습과 내적 의미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발 디자인의 전개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연구의 부가적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을 위한

문헌적 연구로 의상과 미술 관련서적, 도록, 의상 및 신발 관련 잡지 등을 조사 연구하며, 부수적 자료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문헌연구는 의상학, 미학 및 예술학 분야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한다. 연구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서양 신발에 국한된 연구로 제한하며, 사적 고찰의 범위는 신발의 기원과 발생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II. 신발의 역사적 고찰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불균형한 기후나 거친 지형으로부터 발의 보호를 위해 출발한 것으로 신발의 발생을 추측한다.¹⁾ 기능적인 목적에서 최초로 출발한 신발로는 고대 이집트의 샌들을 들 수 있는데, 기후적으로 뜨거운 태양과 지면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면과 발바닥 사이에 동물 가죽을 놓고 풀잎이나 가는 가죽끈을 연결하여 발등에 묶어 신발의 기능을 하게 했다. 이것이 신발의 가장 초창기 모습이며 조상인 샌들이다. 샌들(Sandal)의 어원은 그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널빤지”라는 뜻의 라틴어 샌달리움(Sandalium), 또는 고대 그리스어 샌달리온(Sandalion)에서 비롯되었다.²⁾

고대에 신발의 유형인 샌들, 슬리퍼, 구두, 부츠의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며 근세에 이르러 하이힐의 모태가 되는 쇼편이 등장하였다.

1. 고대의 신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집트인들의 신발(B.C. 3400~525)³⁾은 B.C. 2000년경에 극히 단순한 형태로 시작되었고, 중 왕국 이후 일부 상류층에서

부터 착용된 신발은 염색한 가죽이나 종려나무로 만든 샌들형태로서 남녀 구분이 없었다.<그림1>

앗시리아(B.C.1200~540)의 왕과 상류계급의 남자들은 굽이 달린 샌들을 신었으며 여자와 일반인은 맨발이었다. 남자용 샌들은 잦은 전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가죽, 천 직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샌들, 낮은 구두, 부츠 형식의 다양한 신발이 착용되었다. 그리고 뾰족한 모양을 가진 신발은 앗시리아인에 의해 이집트나 그리스에 전해졌다.⁴⁾

페르시아인(B.C.600~300)들은 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몸에 밀착된 의복을 입었으며, 이와 함께 구두창이 따로 없이 발목까지 오는 부드러운 가죽과 펠트 소재의 모카신(Moccasin)을 신었고 여기에 심미적 목적을 위해 진주와 보석으로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크레타인(B.C. 3000~1100)들은 외출 시에는 샌들이나 굽이 있는 신발, 슬리퍼를 신었다.⁵⁾ 보다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남자들은 발을 감싸기에 좋은 반 부츠를 즐겨 신었으며 종아리까지 오는 이 부츠는 가죽끈으로 다리를 매거나 감아서 착용하였다.

그리스(B.C. 1200~146) 초기의 샌들은 펠트, 가죽, 파피루스(Papyrus)로 발바닥 부분을 만들고 이를 가죽끈으로 묶었으며, 후기에 와서는 신발에 끈을 달고 이 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엮갈리게 묶어 전통적인 그리스 샌들이 되었다⁶⁾. 샌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이 등장하였다. 여행자나 군인들은 발가락이 노출되고 종아리나 무릎까지 끈으로 묶는 부츠형태의 Buskin을 신었다. 연극배우들이 신었다가 후에 일반인들이 신게 된 것으로 발끝이 날선하고 7.5cm정도 되는 두꺼운 코르크를 바닥에 맨 Cothurnus나, 농부들이 신는 샌들인 Carabittina 등이 있었다.⁷⁾ 이 시대에 와서 발의 형태에 따라 신발의 좌·우 구분이 생겼으며⁸⁾, 그리스의 더운 기후에 적합하도록 항상 발가락 부분이 노출 되도록 만들어졌다.

에트루리아인(B.C. 800~300)의 신발은 물(Mule)형, 슬리퍼(Slipper)형, 샌들(Sandal)형, 부츠(Boots), 버스킨(Buskin)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들은 소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앞 코가 뾰족하게 위로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⁹⁾

로마(B.C. 750~476)의 경우 일반시민들은 Calceus라는 가죽부츠를 착용하였는데 위 부분은 끈으로 묶게 되어 있었다. 특히 귀족구두인 Cothurnus는 High boots형식으로 로마의 원로원이나 사관들은 검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정복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은 그 위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자머리가 새겨진 부츠를 신었다. Baxer는 종려나무 잎으로 짜서 만들어진 샌들로 농민과 철학자가 신는 신이었다.¹⁰⁾ Crepida는 일반시민들이 집안에서 신던 신으로 발꿈치와 옆면이 덮이기도 하며 발가락이 노출된 샌들의 변형으로, 구두창이 두껍고 투박하여 걸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러한 명칭이 유래했다. Soccus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노란 색상으로 양모, 울, 리넨을 사용한 여성용 신발이다.¹¹⁾



<그림 1> 이집트의 샌들

2. 중세의 신발

비잔틴제국(395~1100년)의 신발은 그리스와 로마의 샌들형에 비해 발을 좀더 감싼 스타일로 서유럽의 추운 기후의 생활 여건 때문에 발목까지 오는 Shoes타입 형식이었으므로 요즘의 무용화와 비슷하다. 부츠는 발목, 종아리 중간, 무릎 아래, 등 여러 가지 길이에 길고 뾰족하게 앞꿈치를 재단했다. 구두의 모양은 남녀 구별이 없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었으며 벽화의 묘사에 의하면 여자의 신발은 항상 의복에 덮여 있었으므로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¹²⁾ 색상은 붉은 색이나 밝은 색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근세와 같은 구두의 형식을 낳기 위한 과도기였던 로마네스크 시대(1100~1200년)의 구두는 목이 긴 것, 짧은 것, 짜올려진 것, 버클이달린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여자의 구두는 대개 목이 짧았다.¹³⁾ 가장 대중적인 신발로는 Estivau라는 부츠를 들 수 있는데, 반 부츠인 Brodequin과 위가 열려져 끈 또는 단추나 버클로 조절할 수 있는 가죽과 리넨 소재의 가마쉬(Gamash)가 있었다.¹⁴⁾ 당시에 성행했던 동방에서의 실크수입과 모피(fur)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귀족층의 신은 더욱 화려하게 발달하여 실크, 벨벳 등에 금은사의 교직물이 사용되거나 진주, 보석,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유럽신발의 질은 이 시기에 급속히 향상되었다

14세기 일반적인 남성신발은 발목이 낮고 앞 부리가 뾰족한 형태였다. 폴란드에서는 크랙코크 프랑스에서는 뿔렌느(Poulaines)라고 불렀는데 뾰족한 앞부분의 끝을 금줄이나 은줄을 사용하여 무릎에 착용한 가터에 매달았다.<그림2> 이것은 차드 2세가 보헤미아의 앤과 결혼하면서 유럽에 개되었으며 당시 폴란드는 보헤미아 왕국의 일부다.¹⁶⁾ 14세기 동안은 앞 코가 뾰족한 신발을 착용하다가 1451~1475년에 부르고뉴 왕실에 역사상 끝이 가장 길어진 신발이 등장하여 뿔렌느의 길이가 12인치나 되자 영국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길이를 규제하기까지 하였다.¹⁷⁾ 비오는 날에는 고가의 뿔렌느를 거리의 진흙이나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갈로쉬나 패튼을 착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2> 고딕시대의 뿔렌느

3. 근세의 신발

르네상스시대(1500~1600년)에는 15세기 중엽까지 전성을 이루었던 고딕풍의 뾰족한 앞 코가 1490년경에 들어서면서부터 르네상스 풍의 둥그스럼한 모양으로 변화하여 후기에는 오리모양의 진기한 형태로 확연히 달라졌다. 둥근 앞 코가 점점 거대해져서 1540년경에는 각국에서 제조 금지령이 내려졌고 영국에서는 폭 15cm이상의 구두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16세기 후반에는 쇼핀(Chopine)이라는 슬리퍼 형식의 높은 신발이 터키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소개되어 유행했는데¹⁸⁾ 굽을 나무나 코르크로 만들고 가죽이나 직물로 싸서 채색하거나 때로는 도금하여 장식했다. 브룩클린과 보스톤 박물관에 소장된 쇼핀은 그 높이가 6~7인치 정도이며 심지어는 18인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쇼핀을 신고 거리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시중드는 사람이나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그림3>



<그림 3> 르네상스 시대의 쇼핀

날씨가 나빠지면 오물과 진흙 투성이가 되는 거리로부터 고가의 긴 스커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면에서 발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목적과, 키를 더욱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겨진 쇼핀은¹⁹⁾ 근대적인 하이힐(High heel)의 모태가 된다.²⁰⁾

바로크시대(1600~1700년)의 신발은 의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였는데 특히 남자 신발은 바지길이에 따라 변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7세기에 스페인 풍의 짧은 바지 Haut de

Chausses가 유행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오는 긴 부츠가 애용되다가 Haut de Chaussées가 길어짐에 따라 짧은 부츠를 신게 되었다. 부츠는 일반화되어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착용했으며 착용자가 말을 타든 타지 않든 부츠에 박차²¹⁾를 달고 다녔다.²²⁾ 1660년대에 들어와 통이 넓은 부츠는 기사들 사이에서만 존속되고 대신 루이 14세 형이라는 새로운 구두가 보급되었으며(그림4), 1682년대는 화려했던 구두장식이 쇠퇴하고 기능적인 버클(Buckle)로 대체되었다²³⁾. 17세기 중엽에는 옥스퍼드(Oxford)라고 하는 실용화가 유행했는데,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고 다녀서 붙여진 명칭이다.²⁴⁾



<그림 4> 루이14세의 루이즈 힐

여성용 신발은 서구에서 최초로 여자의 발이 스킵 단 밑으로 나와 눈에 띄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세기에 비해 17세기 귀부인들은 작은 발을 좋아하여 리넨으로 된 테이프로 발을 조여 작은 구두에 억지로 발을 밀어 넣어 신었다. 구두의 굽은 더 가늘어지고 높아져 섬세한 곡선의 하이힐은 7~8cm 정도가 되었으며 발등 부분은 좁은 가죽 끈 또는 작은 버클로 조절하였다.

로코코시대(1700~1790)에 이르러 제화공(Shoemaker)이 예술가로서 높은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될 정도로, 구두와 부츠는 복장과 예의를 중시하는 귀족에게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유지해야 할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신발에서 네모난 구두나 높은 굽은 차츰 사라지고 가벼운 신발인 Pumps가 등장하였는데²⁵⁾ 굽은 아주 낮거나 없으며 부드러운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고 버클에는 다 이어몬드나 진주로 장식했다. 18세기 중엽부터 색상은 흑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

였고, 특히 붉은색의 밑창은 프랑스 궁정용으로써 영국과 미국에 보급되어 1800년까지 유행하였다. 이 외에 흙, 먼지, 진흙으로부터 구두를 보호하기 위한 구두 덮개가 있었다. 귀부인들이 점점 더 작은 구두를 애호하면서 가죽과 금, 은, 보석의 화려한 장식에 의해 당시의 신발은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였다.

4. 근대의 신발

18세기 말 로코코 스타일의 호화로운 복식에 이어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고대 그리스풍의 자연스러운 복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팬타롱(Pantalon)과 함께 신은 신발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위 부분이 하트모양이고 술 장식(Tassel)이 달린 헤시안 부츠, 사냥용으로 신은 앞부분이 높고 네모로 각이져 있으며 뒷부분이 잘려나간 웰링턴 부츠, 넓은 커프스가 위 부분에 달린 자키 부츠, 낮은 굽의 가죽 펌프스 등이 있었다. 여성들에게는 에스카르팡(Escarpin)이라고 부르는 새틴, 브로케이드, 벨벳 등의 광택 있는 천에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굽이 없는 화려한 신발이 유행하였다. 또한 발목을 묶는 그리스 풍의 신발과 천으로 만들어 끝에만 가죽을 댄 짧은 부츠도 공존하였다.²⁶⁾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가 대두되자 혁명전의 귀족풍이 부활하게 된다. 남성은 굽이 약간 있고 길이가 다양한 검은 가죽 부츠를 애용하였으며, 야외용 신발은 가벼우며 굽이 없고 발등 부분에 리본이나 버클장식을 하였다. 여성용 신발은 영국에서 발명된 고무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는데 신발 감피부분에 고무를 넣어 착용감과 편리함이 증가될 수 있었다.²⁷⁾

1858년에 리만 블랙(Lyman R. Blacke, 1835~1883)이 제화용 재봉틀을 발명한 이후 구두 제조법이 수작업에서 대량생산으로 바뀌면서 현대적 신발의 원형이 등장하게 되었다.²⁸⁾ 19세기 말, 자연 과학 연구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합성섬유와 합성염료의 발명으로 직물부문에든 놀라운 비약을 초래하여, 착용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는 형태로 복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신발에 있어서도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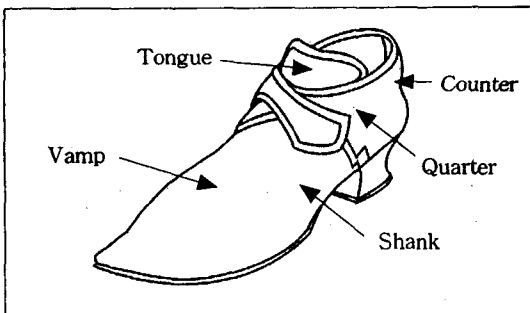
비즈니스가 성행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구두가 등장한다. 동시에 진보된 기계 기술이나 고무(Rubber) 밀착 등의 신재료의 사용은 특히 스포츠화를 개량하는데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짧은 부츠형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끈으로 매는 것, 단추를 다는 것, 부츠에 고무를 댄 것 등 세련된 장식과 디자인들이 유행하였다. 남성들은 펌프스, 옥스퍼드를 주로 신었으며 야외용 구두는 윤이 나는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었다. 1880년 이후에 스포츠화로는 흰색과 검은색의 컴비네이션(Combination)스타일이 널리 보급되었다.²⁹⁾

III. 신발의 분류

현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시대별 문화와 복식, 착용자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신발의 연구와 디자인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발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기본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신발의 구조

신발 디자인에 따른 주된 변화 요소는 굽 모양(Heel Shape), 코 모양(Toe Shape)에서 나타난다. 이를 상세히 고찰하기 위해 먼저 신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굽(Heel), 갑피(Upper),창(Sole)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신발의 구조

굽(Heel)은 구두 뒤 부분의 아래 부분으로 가죽, 고무, 나무, 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며 힐의 높이가 기능상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굽의 모양이 유행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Heel의 종류에는 Louis Heel, Cuban Heel, Wedge Heel, Dutch Heel, Stacked Heel, Flat Heel, Spike Heel, Art Heel등이 있다.

갑피(Upper)는 구두 윗부분을 말하며 뱀프(Vamp), 쿼터(Quarter), 카운트(Counter) 등으로 구성된다.

뱀프는 Toe와 발등 위의 부분이며 우리말로 '앞날개'라고 말하고, 쿼터는 뱀프와 연결되는 구두 갑피의 뒷부분 즉, '뒷날개'를 말한다. 카운트는 구두 뒤꿈치 부위의 쿼터와 쿼터안감(Quarter Lining) 사이에 넣는 월형심(月型芯)인데, 이것은 뒤꿈치 부위의 모양을 유지시켜서 신은 후에도 변형을 방지하고 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코모양(Toe Shape)은 구두에서 앞 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Heel의 모양과 Trend에 따라서 Toe Shape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인 형태는 Pointed Toe, Tapered Toe, Oblique Toe, Blunted Toe, Round Toe, Square Toe 등으로 나누어진다.

신발의 미적 고찰에서 코모양은 굽의 높이나 모양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2. 신발의 유형에 의한 분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신발은 샌들, 슬리퍼, 슈즈, 부츠로 구분되는데,³⁰⁾ 발을 노출시키는 부분은 다르지만 개방형의 신발인 슬리퍼와 샌들, 그리고 가죽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발을 감싸는 폐쇄형의 신발인 구두와 부츠로 대별된다.

1) Sandal

샌들은 개방형의 신발로 끈이나 밴드로 발등과 발바닥을 연결하므로 발등을 감싸는 다른 신발에 비해 발이 시원하여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은 최초의 신발이다.³¹⁾

가죽끈 샌들은 노출이 많아서 관능적 매력을 가

지고 있어 자유스러운 사고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잘 어울리며, 이브닝샌들은 포멀한 여성용 샌들로 발등에 가는 스트랩이 있고 굽이 높으며 드레스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 보석이나 비즈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버켄스톡(Birkenstocks)은 미국의 의상디자이너 마곳 프레이저가 1960년대 말 처음으로 소개한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신발이다. 발바닥 윤곽이 드러나는 묘하게 생긴 샌들로 '히피 기어(Hippie Gear)'라 불리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125가지 이상의 스타일로 분화되어 유행하고 있다.

비치 샌들은 보통 해변에서 신는 것으로 코드화되어 있지만 응용범위가 확장되어 일상적인 고무, 코르크(Cork), 나무, 비닐 등 다양한 소재로 일상화되어 있다.³²⁾

2) Slipper

슬리퍼란 매는 끈이나 여미는 수단 없이 그대로 꿰어 신는 신발의 총칭으로³³⁾ 발등이 낮고 가벼워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데서 유래한 명칭이다.³⁴⁾ 현대의 슬리퍼는 Mule과 Ballet Slipper 형태가 주를 이루며, Mule은 Heel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뒤축이 없는 Slipper형식으로서 1940년대에 대중적으로 애용되었다.³⁵⁾ Mule은 수메리아인들이 처음 신었을 때는 실내용 슬리퍼였는데 이탈리아인들에 의해서 Heel이 부착됐으며 Wedge Heel을 다는 경우가 많았다.³⁶⁾ Mule은 특히, 제인 맨스필드와 마릴린 먼로와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신발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조장은 신발의 미적가치와 직결되는 측면이다.

Ballet Slipper는 직물소재나 Goat Skin으로 만든 굽이 없이 평평한 밑창을 낸 신발로서 무용가들이 주로 신지만 시대에 따라 유행의 한 요소로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져 애용되기도 한다.

3) Shoes

구두는 부츠와 함께 폐쇄형의 신발로 발등높이에 따라 부츠와 구별되고 신는 방법에 따라 슬리퍼와 구별된다.³⁷⁾ 구두는 신발의 발등높이가 발의 복사뼈를 기준으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³⁸⁾ 구두

(Shoes)라는 용어는 영어로 색슨어인 쇼(sho) 즉, 발이 몸의 중심이 된다는 "핵(核)"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³⁹⁾ 초기에는 한 장의 생가죽으로 만들고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어 잡아 당겨 신었으나 나중에는 버클, 리본 등 여러 가지 여밈을 사용하였으며 현재의 다양한 구두로 발달하였다.⁴⁰⁾

Oxford는 17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부츠로 인한 발목에 불편함을 느껴 단화를 많이 신으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끈 달린 단화의 총칭이다.

Balmoral은 원래 구두가 제조되었던 Scotland의 Balmoral성(城)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⁴¹⁾ 일본에서는 내익근(內翼根)이라고 한다. 내익근은 구두의 Vam부분이 Quarter부분의 밑으로 접합되어 꿰맨 것을 말한다. Blucher는 1815년 워털루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격퇴시킨 영국의 블루처 장군이 처음 고안하여 신었다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외익근이라고 부르는데 Vamp와 Quarter가 연결되어 재단되었으며 Tongue부분이 위로 접합되어진 구두이다.⁴²⁾ 구두는 몇 개의 부분이 연결되어 감피가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진 구두를 One Piece Vamp 또는 연익근이라고 한다.

Brogue는 주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털(毛)이 섬세한 Calf Skin으로 만들어진 옥스퍼드형 구두를 가리키는데⁴³⁾, 구두끈이나 T자형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발 안으로 스며든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발 등에 구멍이 뚫려 있다.

Saddle은 구두의 디자인이 마치 말등에 안장을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으며 앞날개, 뒷날개, 말안장 모양의 중간(Shank)부분을 분리시킨 3등분 형식으로 제작되어 지는데 Shank부분을 다른 색으로 배색하는 경우가 많다. Moccasin은 Sandal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신발 중의 하나로,⁴⁴⁾ 거의 6000년 동안 착용되어 왔는데 특히 American Indian들이 사슴가죽으로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한 장의 가죽으로 둘러싸서 즐겨 신었다.

Loafer는 굽이 낮은 신발로 Moccasin과 비슷하며 Norway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40년대에 미국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게으름뱅이

들이 좋아할 정도로 Top line을 넓게 구성하여 볼륨을 살렸기 때문에 신고 벗기에 편리하다. Tongue 부분에 밴드로 처리하여 발을 조이는 역할을 하며 Tassel, Chain으로 장식한다.

Pumps는 끈이나 고리, 금속장식이 붙지 않는 발등이 깊게 패여있는 여성용 구두로,⁴⁵⁾ 매우 가볍고, 편편하며, 형태가 단순하여 신발로 18세기에 하녀들에 의해 신겨진 것이 기원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형은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마담 퐁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55~1764)가 애용했던 형태가 변한 것이다.

4) Boots

Boots는 추운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며 추위를 막거나 사막, 산악지대와 같이 황량한 지역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었던 신발로서,⁴⁶⁾ Top line의 높이에 따라 Ankle Boots,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오는 Half Boots, 무릎이상까지 오는 Long Boots, 대퇴부 이상까지 오는 Hip Boots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Boots의 통(筒)넓이, 또는 종아리에 Fitting되는 여부에 따라서 Loose fit, Semi loose fit, Fit등으로 나누고, 사용목적과 기능 그리고 유행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IV. 서양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

I장에서 III장까지의 사적고찰을 통하여 신발의 외적형태는, 그 기본적 구조와 분류에 기초를 두고 시대별 복식과 문화 및 착용자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V장에서는, 문화현상인 패션의 일부로서 신발에 있어 구체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발생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적 다양성 속에 공통적으로 관류하는 내재적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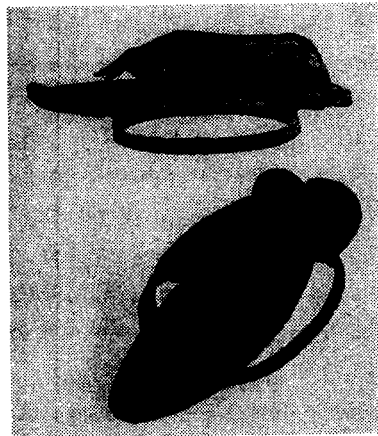
1. 신체보호성 및 신체능력 확대성

1) 신체보호성

신발의 최초의 발생 동기는 인류가 자연 환경으

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일강의 광활한 사막과 그 위에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에 적응하기 위해 종려나무로 만든 샌들 형태의 극히 단순한 이집트(B.C.3400~525)의 신발이 B.C. 2000년경에 시작되었다. 반면에 페르시아인(B.C.600~300)들은 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부드러운 가죽과 펠트로 된 구두창이 없이 발목까지 오는 모카신(Moccasin)을 고안하여 신었다.

14세기 고딕시대에 이르러 빨렌느 아래에 착용한 높은 보호용 신발은 당시에 사방에 만연되어 있던 진흙이나 쓰레기로부터 신체와 신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독일인은 이러한 보호용 형태의 신발을 언더 슈즈라하고 프랑스인은 갈로쉬라 했으며 영국인은 패튼이라고 명명하였다. 패튼이나 갈로쉬는 바닥에 두꺼운 코르크가 붙은 가죽 신발, 혹은 타원형의 나무로 만든 굽 위에 스트랩이 달려있는 형태로 빨렌느와 오버슈즈로 신었으며 이러한 오버슈즈는 근세시대에는 더 많이 애용되었다 <그림6>.



<그림 6> 신체를 보호하는 여성용 패튼

16세기 후반에 나타난 쇼핀 역시 날씨가 나빠지면 오몰과 진흙 투성이가 되는 거리로부터 신체와 고가의 긴 스커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발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키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적인 목적으로 신겨졌다.

이처럼 시대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던 신발은

지금은 인류의 복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이며, 신발이 없이는 일상적인 외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 발의 보호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발이 몸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인체 구조상 발의 안전과 보호는 신체 전체의 보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 보호성은 더 나아가 심리적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2) 신체능력 확대성

인간의 신체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은 신발의 역사에서 뚜렷이 표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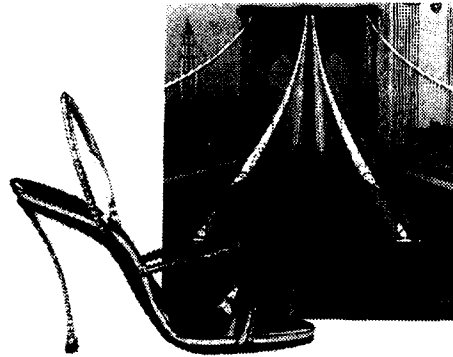
고딕건축 스타일의 첨예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달한 고딕양식의 일반적 남성신발 뿔렌느는 앞이 길고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기이한 디자인의 신발로 앞 부리에 말의 털을 넣어 패딩 한 후 끝 부분이 위로 구부러지게 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14세기 동안은 앞 코가 뾰족한 신발을 계속 애용하였으며 1451~1475년 부르그뉴 왕실에서는 역사상 끝이 가장 길어져 12인치나 되는 신발을 착용했다.

16세기 후반에는 슬리퍼 형식의 신발인 쇼핀(Chopine)은 6-7인치, 심지어는 18인치에 이르는 높은 굽을 나무나 코르크로 만들어 가죽이나 직물로 싸서 채색하거나 도금하여 장식했다. 1553년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가 이와 같은 새로운 하이힐 스타일을 헨리 II세와 결혼하면서 파리로 입성시켰는데, 그녀는 결혼식에서 하이힐을 신으므로써 신체 능력의 미적인 확대를 위해 평범한 굽을 던져버린 최초의 여성이다.

이처럼 뿔렌느는 길이 방향의 신체확대성을 나타내고 쇼핀은 높이 방향의 신체확대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뿔렌느는 주로 남성을 위한 신발로 신분이 높을수록 길이가 더 긴 뿔렌느를 착용하여 착용자인 남성의 신체능력을 표현하는 그 시대 특유의 전유물이었다.

현대의 예로는 1953년에 탄생한 스티레토 힐을 들 수 있는데, 가늘고 발에 꼭 맞는 형태를 위해 전통적인 궁중 구두의 뾰족한 코와 Louis Heel을 채

택하면서도 굽의 높이를 최대한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높이 요소가 디자인상 한 장르의 극한까지 도달하도록 고안하였다(그림7). 이렇게 하여 하이힐은 새로운 기계시대에 적합한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여성 신체의 키를 더욱 커 보이게 해줌으로써, 외적인 신체구조의 확장이 내면에 반영되어 여성자신 스스로의 신체능력을 확대시키고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미적인 능동성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림 7> 신체능력을 확대하는 하이힐

2. 장식 욕구의 표현

장식(裝飾)에 해당되는 영어 Ornament는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하다'에서 유래하였다.⁴⁷⁾ 장식은 인간의 표현 본능의 하나로 인간자신과 생활공간, 생활행사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주술(呪術)과 액운을 막기 위한 기원의 의미도 포함된다.⁴⁸⁾

장식은 본래 무엇인가를 치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독립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⁴⁹⁾ Schmarsow는 장식예술은 그 자신이 독자적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예술에 수반되어 그들에게서 표현되어야 할 가치들을 강조하고 매개하면서 그 매력에 주의를 집중시켜 그 수용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식은 일종의 가치표시(Wertbezeichnung) 또는 가치매개(Wertvermittlung)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신발에서의 장식은 일반적으로 Upper의 발등 부위에 부착되는 장식을 말하며, 구두의 모양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값어치있는 구두로 포장하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신발은 장식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대로부터 신발에 나타난 장식을 살펴보면 로마인들은 Sandal에 오목하게 홈을 파고 금박을 새겨서 장식을 하였으며,⁵⁰⁾ 귀족들은 금사로 자수를 놓거나 보석으로 장식한 샌들을 신었다. 크레타인의 남자들은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를 신을 때 가죽끈으로 다리를 매거나 감아서 장식하였다.⁵¹⁾ 고딕시대에는 빨렌느의 끝에 뱀의 꼬리, 물고기 꼬리 등 기발한 형태의 장식으로 치장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는 당시의 장식용 세공과 수공업 기술이 최대로 발달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크시대 신사들의 부츠는 목이 크게 벌어지고 뒤집혀 접혀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착용자의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보기 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혀 보이는 부분에 우아한 루프나 레이스로 나비나 장미모양을 달아 장식해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어서 기능적 불편을 능가하는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로코코 시대의 귀부인들은 매우 작은 구두를 애호하여 여기에 가죽과 금, 은, 보석 등의 장식으로 기능과는 무관한 극도의 치장을 함으로써 구두는 하나의 예술품 같이 보일 정도였다. 또한 16세기에 Slipper는 금은사로 교직한 고가의 벨벳과 화려한 실크로 만들어 장식되었으며, 18세기에 귀족들은 Brocade와 자수로 Mules을, 빅토리아(1819~1901)인들은 구슬과 레이스로 Boots를 장식하였다.

장식의 소재로는 가죽, 철물, 플라스틱, 천, 보석, 비즈, 구슬, 레이스 등이 사용되어왔다. 장식의 형태에는 가죽소재의 것으로 밴드(Band), 킬티(Kilty), 술(Tassel) 등이 있으며 철물, 플라스틱 소재로 브로치(Brooch), 버클(Buckle) 등이 있다. 그리고 장식의 기법에는 자수, 퀴팅, 비딩, 셔링(shirring), 패치 워크, 애플리케 등이 있다.

버클은 역사적으로 고가의 장식이어서 신분 과시의 상징으로 쓰이다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상징적인 이미지는 감소하게 되고, 잠그는 기능을 가진 대용물인 끈이나 버튼이 등장하여 이들이 패셔너블하게 애용되면서 버클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밴드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구두의 밀착도를 조절하는 용도 외에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버클을 끼우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Kilty는 가죽소재로 만들어지는데 골프슈즈나 모카신(Moccasin) 스타일의 여성구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가죽을 혀 모양으로 재단해서 곡수가닥처럼 발의 Instep 부위에 장식한 것으로 그 위에 술이나 버클장식을 다는 경우도 있다. Tassel은 가죽끈이나 실다발의 한쪽 끝을 묶어서 늘어뜨린 장식술을 말하며 Loafer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8> 화려한 자수 장식

장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특히 여성 신발의 역사에서 계속 재현되는 주제이다.⁵²⁾ 왜냐하면 프랑스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남성은 장식적인 패션을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18세기 초부터 여성 구두의 장식적인 대담성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그 전형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도 장식성이 강한 신발은 여성화에서 두드러지며 리본이나 꽃, 자수 등은 여성신발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식적인 현상이다(그림8). 여성이 남성보다도 신발에 있어서 장식적인 부분에 강한 욕구를 표현하는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남근의 결여를 보충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과장된 꽃이나 리본을 장식하여 나르시시즘을 경험하며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3. 성적 표현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성에 대한 욕구를 복식의 다양한 아이টে็ม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신발(Shoe)이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의 발생학적 어원에 따르면 '가리다' '모호하게 하다(Obscure)'와 관련되어있다.⁵³⁾ 신발은 예로부터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부끄러운 부분으로 여겨져 온 발과 관련하여 숨겨져 있는 성적 욕망을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발은 맨발로 상징되는 욕정과 야성적 충동으로의 이퀄립에서 방패역할로 인식되었으며, 물질적 인간 존재 자체의 움직임에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발은 허리 다음으로 성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남근을 상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발을 감싸는 신발은 '여성적인' 혹은 '여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발과 발을 짝짓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행위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여성의 발의 노출과 관련하여 샌들의 발가락 노출이나 슬링백 스타일의 발뒤꿈치 노출은 시각적으로 가죽 끈 사이에 있는 맨살을 작은 틈으로 확연히 분리시켜 신발에 감춰진 맨발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비닐이나 얇은 레이스 소재의 구두나 샌들의 착용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쾌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자신의 속성의 일부를 보여주려고 하는 욕망의 발현(發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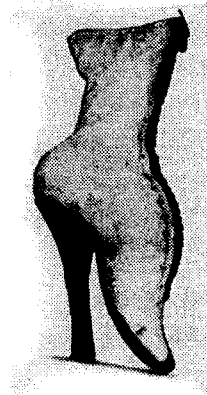
남성의 신발의 경우 12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한 Poulaine는 길고 앞이 점점 뾰족해지는 신발의 급단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신발은 남성 패션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이처럼 좁고 긴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을 수 없었다⁵⁴⁾.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성들은 뿔렌느의 착용을 원했는데 앞코의 길이가 길수록 신분의 상위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성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길고 뾰족한 신발의 코에 말의 털을 넣어 패딩한 후 끝 부분이 위로 구부러진 뿔렌느는 명백하게 남근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신발제조

업자가 소장하고 있는 뿔렌느에는 '성적인 자급자족을 경험할 수 있는 구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음⁵⁵⁾을 고려하면, 길고 뾰족한 코가 여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교황 우르반 5세를 비롯한 성직자들이나 영국의 에드워드 4세, 프랑스의 샤를르 5세 등 공공 도덕의 수호자들은 뿔렌느를 성적으로 심히 음탕하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해 볼 때 신발의 형태 분류에서 이집트의 샌들 코나 고딕의 뿔렌느, 중국의 신발 코 등 앞코가 뾰족하거나 길게 연장된 신발은 그 시대나 지역의 성적 함의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족을 한 발이나 높은 굽을 가진 하이힐은 여성들이 착용함으로써 족쇄와 수갑을 신체에 부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자유로운 걸음 걸이보다는 발끝으로 견게 만들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묘한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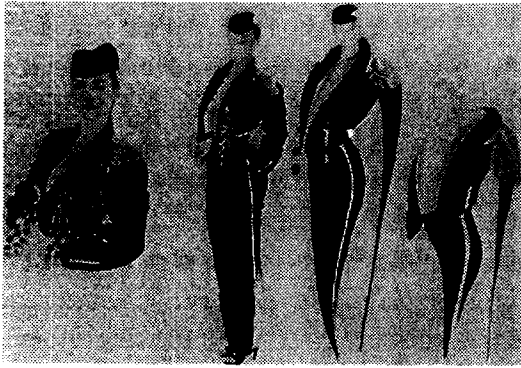
19중엽에는 발에 꼭 맞고 발목 위 부분까지 단추가 채워지는 '보틴느(Bottine)'라는 하이힐의 반부츠가 매우 성행했는데 높은 굽으로 인해 부풀어오른 둥근 발등과 남근을 연상시키는 작고 뾰족한 발끝은 성적인 느낌을 상징한다(그림9). 20세기에 등



<그림 9> 남근을 상징하는 '보틴느'

장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얇은 날을 가진 칼(Thin-bladed Knife)'이라는 뜻의 바늘처럼 뾰족하고 긴 스틸레토 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적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하이힐은 여성의 엉덩이를 연상시키는 발뒤꿈치와

긴장한 다리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굽으로 성적 매력을 상징하여 남성과 여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그림10).



<그림 10> 여성의 인체를 상징하는 하이힐

여성구두의 에로티시즘과 정숙성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디자인의 시각적 특징들을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옥스퍼드 구두는 성적으로 심각하지 않음을, Sling-back(뒤꿈치가 노출되어 있는 구두)은 Decolletage(등이나 가슴이 많이 노출된 드레스)를, 발등이 깊게 파진 구두는 유방사이의 갈라진 틈을, 스틸레토 힐은 Kinky Sexuality를,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은 속옷을 보이 고자 하는 욕망을 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⁵⁶⁾. 신체를 대상화하여 표현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하이힐의 발 뒤꿈치부분으로 여성의 몸 중 엉덩이 부분을 나타내며, 뒤꿈치 부분을 끈이나 버클로 잠그는 형식의 Sling-back구두는 뒤꿈치 부분의 살결이 둔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성적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성교하는 구두(Fuck Me Shoes)”라는 상징적 명칭으로 불리웠다. Thea Calabria-Rooke의 작품 ‘하녀(Maid Shoe)’라는 환상적인 구두는 여성의 하체를 표현하는데, 둔부를 나타내는 볼록한 뒤꿈치와 긴장한 다리모양의 힐 그리고 하녀의 대표적 이미지인 흰 에이프런을 상징하는 큰 리본이 하녀와 여성지배자(Donna Matrix)의 관계에서 하녀의 ‘절대복종’을 의미한다(그림11).

실제로 하이힐을 착용한 여성의 자세를 보면 높은 굽이 다리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엉덩이의 움직임이 양쪽으로 더 흔들리면서 강조되고, 등은 아아

치 형태로 꼳꼳하게 서게 만들며 가슴을 앞쪽으로 자신감 있게 밀어주어 섹시한 S자형의 바디 라인을 형성한다.

나르시시즘 적인 의미에서도 하이힐은 자기도취와 성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측면을 다 수용하고 있으며 여성적 매력을 최대한 발산시켜주는 성적표현성이 강한 패션 아이템이다.



<그림 11> 여성 인체에 비유된 ‘하녀’ 구두

4. 품위와 신분 상징성

상징이란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의해 하나의 추상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추상이란 대상의 통상적인 맥락(Usual Context)에서 ‘벗어나는(removed)’ 경우를 지칭한다. 따라서 하나의 형식은 그것의 통상적인 Context로부터 추상화될 때 하나의 상징이 된다.⁵⁷⁾ 감각현상이 본래의 의미에 덧붙여 비 본래적 의미를 나타낼 때 거기에서 상징성이 작용하며, 직접적인 묘사나 서술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고대로부터 신발은 소재, 색상, 형태, 장식 등 시각적 요소의 차별화로 계급과 부를 상징하였고, 동시에 신발을 묶는 양식이나 정교함에 의해 사회적 신분과 품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 로마시대에는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그 위용을 상징하기 위해 사자머리를 새긴 부츠를 신게 하여 이것이 승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자수나 보석 장식의 정교함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표현으로 착용자가 귀족임을 상징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과도한 사치문화가 형성되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독점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여 각 계급이 착용해야 할 의복과 신발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 강화시킴으로써, 신발을 착용한 사람의 외관을 통해 그 품위와 신분, 지위의 상징성이 시각적으로 뚜렷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로마를 비롯한 중국 등 서양과 동양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각 시대마다 기록되어 있어, 신발을 비롯한 의복이 주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성은 인류사에 보편화된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뽀텐스의 길이는 신분의 명백한 상징으로 평민은 13~15cm, 중류층은 30cm, 왕은 60cm로 신분에 따라 그 길이가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구두코의 길이는 남성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매우 높은 플랫폼 구두인 쇼핀은 유럽의 왕가와 귀족 여성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쇼핀을 신었으며 여성은 남성이나 하인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쇼핀을 착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쇼핀은 착용자의 공간적 위치를 높임으로써 궁정 귀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품위와 높은 지위를 알릴 수 있는 신분의 상징으로 미적 가치를 발현하였다.

바로크시대에는 귀족과 일반인들의 신분 상징성은 굽 높이와 밑창의 색으로 구별되었다. 루이 14세는 5피트 5 1/2인치의 작은 키 때문에 정교하게 장식된 4 1/2 또는 5인치의 높은 하이힐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화려하고 높은 굽으로 키를 높임으로써 태양왕의 남성다움과 권력을 과시하였다.⁵⁸⁾ 그는 나무로 된 하이힐을 화려한 붉은 가죽으로 싸서 착용하였기 때문에 뒤 굽이 높은 빨간색 구두가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게 되어 프랑스 궁정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서양 여성들에게 작은 발은 우아함과 연약함 그리고 보호의 대상임을 의미하였으며, 바로크 시대부터 로코코 시대의 신발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리본, 자수, 보석으로 장식한 신발은 크기가 작을수록 고귀한 예술품과 같았다<그림12>. 당시에 발이 크다는 것은 곧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평민임을 뜻했으므로 여성들은 극도로 작고 비실용적인 신발

을 신어 그들의 품위있는 지위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귀부인들은 작은 신발로 인해 발이 딱 끼어서 잘 걷지 못하여 하녀들이 시중을 들어야 했으므로 이를 통해 신체부동성을 포함한 귀족만의 신분적 특권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림 12> 품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자수와 버클

현대에 와서 하이힐은 전통적인 여성적 수동성과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성적대상인 '사랑의 상징'에 '공격의 상징'이 부가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적 강함과 권력, 지배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의미의 전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배적이고 우월함을 나타내고자하는 내재된 심리를 현상화하고자 할 때 이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외적인 의복 표현 중에서 하이힐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된다. 신분이 높거나 성격적으로 능동적인 여성을 주제로 한 최근의 영화나 컴퓨터 게임의 여주인공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이힐을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5. 패션성

패션(Fashion)의 어원은 라틴어 'Factio (만드는 것, 행위, 동작을 의미)'이며, 패션의 정의는 같은 사물을 동시적,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개별 취향의 총화인 대중적 취향이다. 이는 주로 의상에 적용되는 용어이지만 신발은 복식체계의 일부로서 의상과 함께 유행에 가장 민감한 가시적 아이템이므로 패션과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소재와 기능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기술 발달과 더불어

짧아진 유행 주기로 인해 신발에서의 미적 가치로 패션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 고대-1980년대

사적이고찰로 신발의 패션성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문학작품 등의 기록을 통해 고대로부터 당대의 유행흐름에 대한 민감한 관심과 투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딕시대에는 신발을 의복보다 더욱 중요시하여 제작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가죽, 펠트, 벨벳, 브로케이드, 두꺼운 실크 등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여 시대적으로 주요한 품목으로 대두된 신발의 흐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의양의 중요성에 집착한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신발은 의상의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남자 신발은 바지 길이에 따라 변화했음을 II장에서 언급하였다. 17세기에는 스페인 풍의 짧은 바지 Haut de Chausses가 유행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오는 긴 부츠가 애용되었고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부츠를 선택한 신사들은 Haut de Chausses가 길어짐에 따라 짧은 부츠를 신게 되었던 것이 1660년대에 들어와 통이 넓은 부츠는 기사들 사이에서만 존속되고 대신 루이 14세형이라는 구두가 유행되었다. 17세기 중엽에는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고 다녔던 옥스퍼드(Oxford)라고 하는 실용화가 유행했다. 19세기에는 스포츠 비지니스가 전개되면서 의상에서의 변화와 함께 신발도 쾌적하고 실용적인 목적의 수요가 높아져 생활환경의 변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구두가 대중의 취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는 Chanel이 대활약했던 시기로 의복을 활동하기 편하게 디자인하여 신체에 자유로움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구두도 Chanel스타일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다. 또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같은 전문 신발 디자이너가 점차 등장하고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이 발달하여 여배우들의 신발을 주로 제작하면서 전문 디자이너의 위상이 높아졌다. 1930년에는 플랫폼 창(Platform sole) 이 나타나고 재즈, 플래퍼 스타일의 유행과 함께 앵클 스트랩 (Ankle strap)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New Look"을 필두로 Christian Dior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을 당시 그의 곁에는 로제 비비에 (Roger Vivier)라는 구두 디자이너가 있었다. 로제 비비에가 디자인한 일련의 환상적인 구두로 디올의 의상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는 "스틸레토 힐(Stiletto heel)"이 대표적인 힐의 형태로 신발패션을 상징하면서 유행을 이끌어 나갔으며 그 후로 하이힐은 현대 여성이 의복을 갖추어 차려 입어야 할 경우에 빠져서는 안 되는 품목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1965년에는 영국의 Mary Quant가 미니 스커트를 발표하여 젊음과 스피드시대의 감각을 잘 표현했다. Courreges는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된 미니 스커트에 구두가 아닌 부츠를 착용시켰는데, 그가 유행시킨 대표적인 부츠는 부드러운 흰색의 양가죽이나 강하고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고 안쪽으로 지퍼를 올렸으며 발끝은 사각형으로 디자인되어 20세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모방된 부츠 스타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운동화가 유행하면서 운동화는 값싸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가(高價)의 운동화가 청소년층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밀리터리룩의 영향으로 군화스타일의 구두가 부쩍 늘었고 긴치마에 농구화를 신는 형태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비닐 옷, 비닐 핸드백과 함께 비닐 소재의 구두가 인기를 끌었는데 에나멜 소재로 된 컬러풀한 원색의 번쩍거리는 광택 구두는 젊은 층에서 크게 사랑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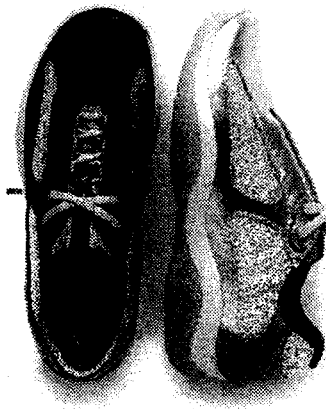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자 신발의 여러가지 미적 가치 중 패션성이 가장 주목받으면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치 체계 하에 패션에서의 다원주의는 장르간의 상호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부각되고, 이에 따라 의상이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신발 디자인도 패션의 주요 트렌드들을 일치되게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의 패션 트렌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데, 신발의 패션성은 이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1) 복고풍(romantic image): 복고풍 패션은 근세시대의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복식, 19세기 낭만

주의의 복식에 대한 향수로 20세기 말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자연으로의 회귀로 다시 등장하였다. 90년대의 복고풍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나타났다. 특히 신발에서는 장식의 극단화가 이루어져 색상 및 스타일 면에서 다양하게 바로코와 로코코의 장식요소가 차용되었다.

(2) 스포티(sporty image): 1970년대 이후 스포츠 룩은 패션의 캐주얼 부분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보편적인 트렌드로 정착되었다. 90년대 후반 프라다의 스포티한 몰드창 구두가 등장하여 정장차림에도 운동화나 캐주얼한 구두가 신겨졌다. 미래적인 느낌의 소재들과 함께 테크노 슈즈도 등장하였으며(그림13), 크로스오버의 경향이 패션전반에 두드러지면서 신발의 소재는 가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스트레치 소재의 개발로 다리에 꼭맞는 부츠도 패션 인기 품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림 13> 미래적인 테크노 Shoes

(3) 에콜로지(ecology 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자연과 환경친화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다원화된 시대적 사고가 반영된 에콜로지 이미지가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제시되었다. 자연지향적 측면에서 자연과 전원에 대한 향수로 오염되지 않은 비 서구문명을 동경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자 하는 의식이 표현되고 있으며⁵⁹⁾, 신발에서는 자연스러운 소재사

용, 장식에서는 동식물을 응용한 자연 무늬나 모티브의 폭발적인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4) 에스닉(ethnic image): 에스닉 이미지는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영으로 서구 문화의 지배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과 원시주의 양식이 부각된 것이다.⁶⁰⁾ 특히 다문화주의의 일환으로 디자이너의 고유성이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퓨전(fusion)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질은 잃지 않으려는 시도로⁶¹⁾, 신발에서도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의 결합 혹은 현격하게 민속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의 세계적 수용현상으로 나타났다.

(5) 아방가르드(avant-garde image):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며 새로운 표현방식의 시범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예술이다⁶²⁾.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인체형과는 무관한 형태를 이루며 장식적 디자인 역시 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⁶³⁾. 신발의 패션성에서 아방가르드는 의외의 충격적 형태를 취하거나 기묘하게 왜곡된 창의적 디자인으로 표현되며 청소년층이나 문화적 소수 그룹에서 유행하였으며 아트 슈즈의 형태로 많이 제시되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서양 신발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고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신발의 유형적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신발은 고대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기능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수십 세기 동안 형태의 변화와 진보를 거쳐 심미적, 장식적인 기능까지도 포함하면서 의상과 함께 발전하였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면 각 시대마다 지역적인 기후나 문화적 특성, 당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소재와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발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는 패션을 완성시키는 복식 품목으로서의 신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구조상으로 신발은 굽, 갑피, 창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발의 외형적 디자인에서의 주요 변화 요소는 신발의 코와 굽의 모양이다. 신발 디자인은 과거의 재현에 근거하여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각 시대에 적합한 기본적 형태에 세부 디자인이 첨가된다. 신발의 유형에 의한 분류는 개방형의 신발인 슬리퍼와 샌들, 그리고 가죽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발을 감싸는 폐쇄형의 신발인 구두와 부츠로 구분되고 이들은 다시 몇 가지 하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적 고찰을 통해 유추되는 서양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는 1) 신체보호성 및 신체능력 확대성, 2) 장식육구의 표현, 3) 성적 표현성, 4) 품위와 신분 상징성, 5) 패션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류가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신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곧 심리적 보호와 연계되었고, 신체의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신발의 길이와 높이를 확장함에 따라 착용자의 자아도 확장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외형적 확장은 다시 특정계층에만 독점적으로 점유되면서 신발은 사회적 품위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높은 사회적 권력과 지위,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화려한 고가의 장식이 신발에 도입되면서 신발은 패션을 주도하는 계층에게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잡고, 토탈 패션을 추구하는 현대에 이르러 패션성은 신발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된다.

정신 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신발은 '여성적' 혹은 '여성'으로 해석되며 신발에 신겨지는 발은 논리적으로 남근을 상징한다. 남근상징성이 명백한 빨렌느는 길이방향의 확장로 신체 능력의 확대성을, 신발의 길이는 왕과 귀족 또는 평민이라는 신분상징성을 잘 나타내 준다. 쇼핀은 여성의 신체능력의 확대를 표현한 최초의 신발로, 높이 방향으로 여성의 신장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미적인 육구를 만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치를 높임으로써 귀부인으로서의 품위와 신분을 상징하였다. 20세기에 등장한 스틸레토 힐은 가늘고 길며 시각적으로 가

벼운 현대적 인상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능성에서도 만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적 가치상으로는 여성의 신체능력 확대성과 성적 상징성, 패션성 등을 뚜렷이 드러낸다.

서양 신발에 내재된 미적 가치 중에서 특히 패션성이 점차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신발이 패션 품목 선정시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 실정에서, 본 연구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제언하며, 이를 계기로 신발 디자인에도 한국적인 모티프를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등 관련 분야의 실용적 연구가 후속 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가 서양 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의 제1보로 수행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로는 동일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신발에 관한 사적 고찰 및 미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통합적 시각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Wilcox R. Turner, *The Mode In Footwear*,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48, p. 1.
- 2) 田中千代, 복식사전, 동경, 동문서원, 1969, p. 223.
- 3) 세부적 연대 및 시대구분은 정홍숙의 "서양복식문화사"에 근거한 분류임.
- 4) 임영미, 옷과 장신구와 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춘사, 1984, p. 141.
- 5) Kather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Accessories of Dress*, Charles. A. Bennett, 1940, p. 252.
- 6) 이정옥, 최경순, 최영옥, 서양복식 발달사, 형설출판사, 1989.
- 7)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1989.
- 8) Kathe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op. cit., p. 255.
- 9) Wilcox R. Turner, op. cit., p. 26.
- 10) Kather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op. cit., p. 255.
- 11) Wilcox R. Turner, op. cit., p. 32.
- 12) 백영자, 유효순, op. cit., p. 123.
- 13)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136.

- 14) Wilcox R. Turner, op. cit., p. 65.
- 15) Ibid., P. 67.
- 16) 불량쉬 페인, 복식의 역사, 1988, 까치, p. 218.
- 17) 한지수, 피혁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P. 3.
- 18) Kather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op. cit., p. 261.
- 19) 불량쉬 페인, op. cit., p. 367.
- 20) Wilcox R. Turner, op. cit., p. 89.
- 21) 승마용 구두 뒤축에 달려 있는 쇠로 만든 톱니바퀴로 말의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할때 사용.
- 22) 불량쉬 페인, op. cit., p. 352.
- 23) 정홍숙, op. cit., p. 229.
- 24) Wilcox R. Turner, op. cit., pp. 105-106.
- 25) 배천범 감수, 패션사전, 디자인 신문사, 1991.
- 26) Luciana Boccardi, Party Shoes. New York, Zanfi Editor, 1993.
- 27) Wilcox R. Turner, op. cit., pp. 137-138.
- 28) Ibid., p. 139.
- 29) 정홍숙, op. cit., p. 352.
- 30) 최경화,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2.
- 31)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 p. 350.
- 32)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 33) 박기완, 도해 복식용어사전, 서울, 유신문화사, 1980, p. 81
- 34) Doreen Yarwood, op. cit., p. 384.
- 35) O'Hara Callan Georgina,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p. 170.
- 36) 허진영, 장길환, 신발디자인. 조형사, 1992, p. 58.
- 37) 田中千代, op. cit., p. 138.
- 38) 박기완, op. cit., p. 138
- 39) 김용운, 서양신발 비교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19기 보고서, p. 14.
- 40) 최경화, op. cit., p. 17.
- 41) Wilcox R. Turner, op. cit., p. 140.
- 42) Mcdowell C, shoes: Fashion & Fantasy, London, Thames & Hudson, 1994, p. 100.
- 43) Ibid., p. 100.
- 44) Ibid., p. 101.
- 45)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46) Doreen Yarwood, op. cit., p. 44.
- 47) Wolfhart Henkmann and Konrad Lotter, Lexikon der Aesthetik, 김진수(역), 미학사전, 서울, 예경, 1998, p. 300.
- 48) 정대웅 외, 디자인 대사전, 서울, 승례문, 1994, p. 581.
- 49) 박섯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p. 7.
- 50) McDowell, C, op. cit., p. 112.
- 51) Marybelles Bigelow, Fashion in History: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Minneapolis, 1970,
- 52) McDowell, C, op. cit., p. 114.
- 53) Samuele Mazza, Cinderella's Revenge, Chronicle Books, 1994, p. 25.
- 54) Mcdowell, op. cit., p. 46.
- 55) Toby Fischer-Mirkin, 허준, 안종설(역), 패션속으로, 새로운 사람들, 1996, p. 289.
- 56) Fred, Davis Fashion, Culture, Identity, Univ. of Chicago Press, 1992.
- 57) George Dickie, 오병남(역), 美學入門, 서광사, 1983, p. 112.
- 58) Mcdowell, op. cit., p.31.
- 59) 한소원, 김영인,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1999, 23권 2호, pp. 297~305.
- 60) 박섯별, op. cit. p. 105.
- 61) 박섯별, op. cit., pp. 114~115.
- 62)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 19~29.
- 63) 박섯별, op. cit., p. 101.